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9월 6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 관광마케팅팀장 박은희 ☎440-4066 • 담당자 정수련 ☎440-406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대한민국 제1호 ‘빛의 도시’ 로 선정

-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 송도, 월미도, 개항장 일대 선정 -

- 국비 28억 확보, 야간관광 활성화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인천 송도와 월미도·개항장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기존 야간 경관명소에 관광자원과 스토리를 연결해 관광 콘텐츠와 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야간시간대 관광객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 등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번공모에 ‘인천백야(仁川白夜) - 인천 100년의 밤(仁川百夜)’을 테마로, 19세기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던 ‘개항도시 인천’에서 100년 후 엔데믹 시대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 스토리를 발굴, 다양한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관광객은 스마트폰(인천e지 앱) 및 관광안내소(야간관광안내센터)를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 및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인천시는 야간경관 명소 조성과 지역상권과 관광기업 등 민간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부터 4년간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시비 28억 원을 더한 전체 56억 원 사업비와 함께 인천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및 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과 연계해 야간관광 활성화에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경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이번 공모를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두주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국내외 관광객 방문 1위의 인천 대표 관광지 ‘송도, 월미도·개항장’을 중심으로 야경 명소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야간관광 브랜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개항장문화재 야행은 9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인천 중구청 일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에서 개최된다. 1차 야행은 9월 24일(토)부터 9월 25일(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2차 야행은 10월 15일(토)부터 16일(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문화재 빛으로 물들다’, ‘빛나는 달밤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개항장의 야(夜)의 장터’, ‘개항장의 밤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품은 밤거리를 만나 볼 수 있다.

붙임 관련사진 2매

[붙임자료] 송도와 개항장의 야경 각 1부.



송도센트럴파크 야경



개항장 문화재 야행 전경